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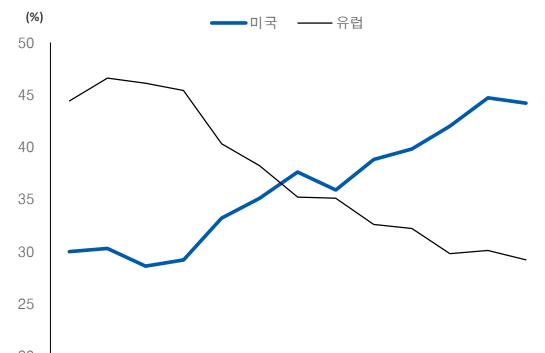


해외 기관투자자, 미국과 기술주에 집중

1. 노르웨이 국부펀드, 미국 집중

-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IT, 헬스케어 등 미래가 유망한 산업과 해당 산업이 집중된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매우 빠르게 늘림
- 2010년 30.0%였던 미국의 비중은 44.2%까지 늘어난 반면, 전통산업 비중이 높은 유럽(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비중은 같은 기간 44.4%에서 29.2%로 감소
- IT섹터가 상대적으로 강한 네덜란드의 비중은 소폭 증가.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미국 주식 비중은 늘고, 유럽 비중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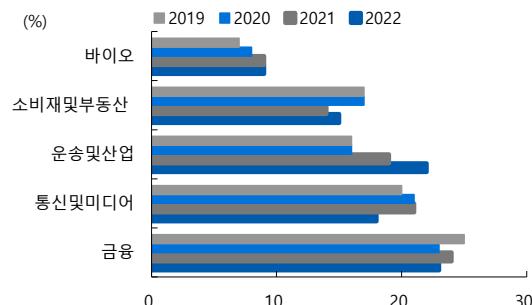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미국과 바이오·Tech 집중

- GIC의 국가별 투자 비중(전체 자산)을 보면, 미국의 투자 비중이 2018년 이후 늘어남
- 테마섹도 2010년 8%였던 북미·유럽의 비중이 29%까지 크게 늘어났으며, 미국의 비중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 전통 산업 투자 축소와 유망산업 투자 확대는 기관투자자들의 공통된 트렌드.

테마섹의 업종 비중 변화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노르웨이 국부펀드, 미국 집중도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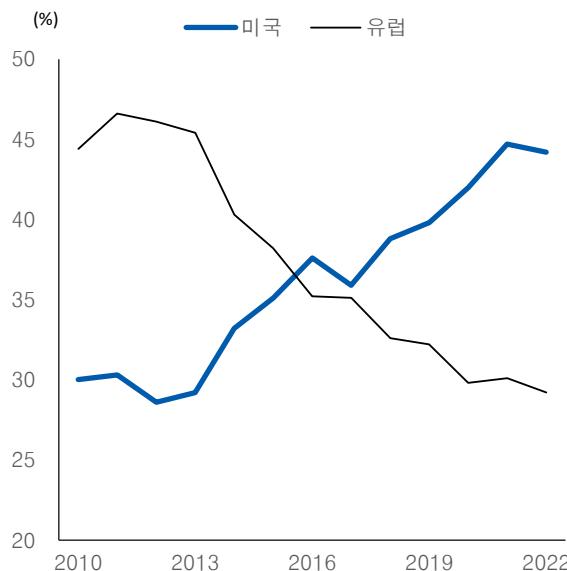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로 약 1,548조원(2022년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자산 중에서 주식 자산의 비중은 70%로 전세계 상장 주식의 1.5%를 보유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주식 자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IT, 헬스케어 등 미래가 유망한 산업과 해당 산업이 집중된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매우 빠르게 높아졌다.

2010년 30.0%였던 미국의 비중은 44.2%까지 늘어난 반면, 전통산업 비중이 높은 유럽(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비중은 같은 기간 44.4%에서 29.2%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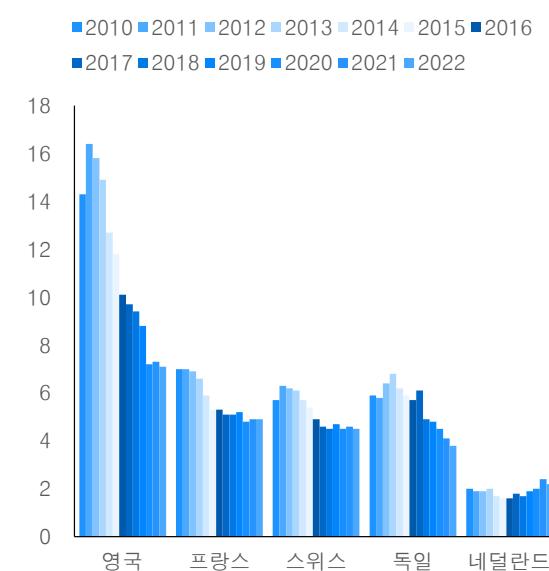
유럽 국가 중에서는 영국의 비중이 14.3%에서 7.1%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프랑스와 독일의 투자 비중도 2% 가까이 줄어들었다. 반면 IT센터가 상대적으로 강한 네덜란드의 비중은 0.2% 늘어났다.

[차트1]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미국 주식 비중은 늘고, 유럽 비중은 감소



자료: NBIM,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유럽 국가 비중 변화



자료: NBIM,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2. 노르웨이 국부펀드, Tech와 Healthcare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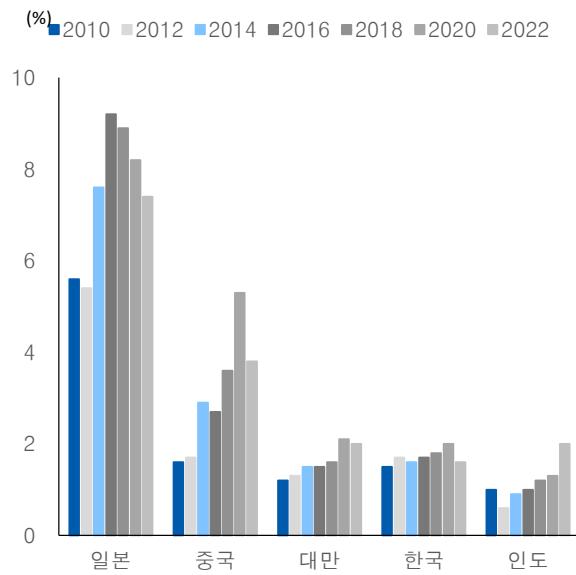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아시아 국가 비중도 변화가 많았다. 2015년 9.5%까지 늘어났던 일본주식의 비중은 7.4%로 줄어들었으며, 꾸준히 증가하던 중국의 비중은 락다운과 미국과의 갈등 영향으로 2021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운용 자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패시브 비중이 높아 시가총액의 변화가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국가별 비중이나 업종별 비중도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다.

아시아 국가는 젊은 인구구조와 내수 시장이 탄탄한 인도, IT 비중이 높은 대만 등의 투자 비중은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났다. 하지만 한국의 비중은 1.5%~2% 사이로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이후에는 투자 비중이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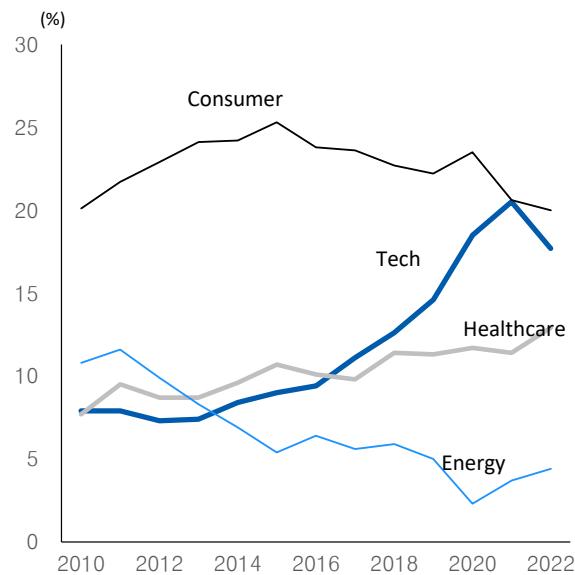
투자 업종 중에선 Tech 업종의 비중이 2010년 이후 9.8% 늘어나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다. 반면 에너지 업종은 6.4%가 줄어들었고, 소비재 업종은 2016년 이후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차트3]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아시아 국가 비중 변화



자료: NBIM,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Tech 비중을 늘리고, 소비재와 에너지 비중은 추세적으로 줄여나갔음



자료: NBIM,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3.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미국과 바이오·Tech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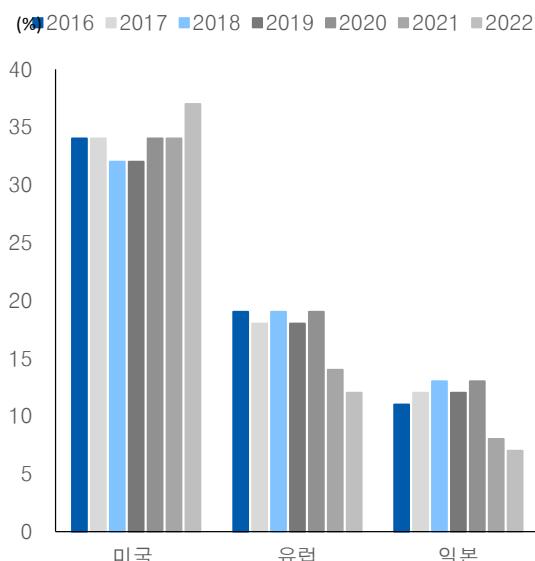
싱가포르에는 GIC와 테마섹의 2개의 국부펀드가 있다. GIC는 선진국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테마섹은 싱가포르와 아시아 중심으로 투자를 하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로는 투자 지역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GIC의 국가별 투자 비중(전체 자산)을 보면, 미국의 투자 비중이 2018년 이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유럽과 일본의 투자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성장률이 정체된 기업이나 국가의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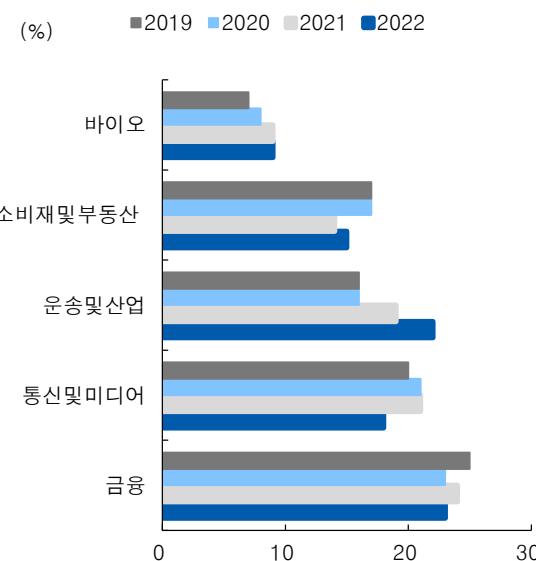
테마섹도 2010년 8%였던 북미·유럽의 비중이 29%까지 크게 늘어났으며, 미국의 비중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테마섹의 투자 업종 중에서는 바이오와 운송 및 산업 업종(Tech 포함)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테마섹은 기후변화, 암호화폐, 게임, 생명공학, AI 등의 스타트업에 매우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전통 산업 투자 축소와 유망산업 투자 확대는 테마섹뿐만 아니라 주요 해외기관투자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트5] GIC의 국가별 투자 비중 변화



[차트6] 테마섹의 업종 비중 변화



자료: GI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테마섹,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